

## 주드의 삶은 비극적인가?

### <목차>

#### I 서론

#### II 본론

1.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꼬마 시간 아범
  - 1) 꼬마 시간 아범의 방향
  - 2) 꼬마 시간 아범이 삶을 대하는 태도
  - 3) 꼬마 시간 아범의 죽음
2. 주드
  - 1) 주드의 방향
  - 2) 주드가 삶을 대하는 태도
  - 3) 주드의 죽음
3. 주드의 비극성 (비교를 통해 정리한)

#### III 결론

#### I 서론

비극. 인생의 슬프고 애달픈 일을 당하여 불행한 경우를 이르는 말. ‘비극’의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토마스 하디의 『이름없는 주드』는 비극을 다룬 소설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주드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비극이라는 단어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불행한 경우를 이르는 말. 그렇다면 그의 인생을 불행이나, 아니냐 구분하는 기준은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나의 경우는 그의 인생을 불행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그가 꿈을 이루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그 과정에는 숨어있는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주드의 삶을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보게 된 나의 견해를 설명하고자 주드의 삶과 삶의 태도에 대해 분석하고 그의 비극을 반복하는 인물, 꼬마 시간 아범과 그 차이를 비교하며 이 책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려보고자 한다.

#### II 본론

1.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꼬마 시간 아범
  - 1) 꼬마 시간 아범의 방향

꼬마 시간 아범은 작품 내에서 이름이 딱 한 번 언급된다. 그의 이름은 ‘주드’로, 그가 주드와 수를 정식적인 부모로 맞이하며 받은 이름이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은 물론, 주드와 수, 자기 자신도 그를 ‘주드’라고 부르지 않는다. 동네 아이들은 주드에게 네 부모는 이름 뿐인 부모라며 그를 놀리기도 한다. 즉, 꼬마 시간 아범의 이름과 존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야말로 그는 이름없는 존재이다.

꼬마 시간 아범이 자신조차 자신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부르지 못한데에는 장소의 이동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꼬마 시간 아범은 태어나 조부모님과 함께 시드니에서 살다가 진짜 어머니인 아라벨라를 만나기 위해 램버스로, 아버지 주드를 만나기 위해 올드브리컴으로 계속해서 이동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고, 심지어 올드브리컴에서는 주드와 수가 동거 생활로 가정을 이루어낸 탓에 마을에서 반강제적으로 쫓겨나기도 한다.

“그럼 내 이야기를 아무 데서도 말해서는 안 된다. 너는 대학이 무엇인지, 대학에서 주는 학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느냐? 그건 교사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보증 수표다. 내 계획은, 아니 꿈은, 대학을 졸업하고 보좌 신부로 서품받는 거다. 크라이스트미너나 그 근처에 사는 것은 말하자면 본부로 들어가는 거지. 내 꿈이 현실적인 실용성을 지닌다면, 그 현장에 있는 게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그 꿈을 실현하는 데 더 나은 거라는 생각이다.”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1』, 정종화 옮김, 민음사, 1966, 23쪽.)

작품 초반에서부터 필롯슨이 어떤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인물의 꿈과 삶을 그려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꼬마 시간 아범은 평생을 떠돌이로 살아왔으며 터를 잡고 가정을 이루어 내야 할 땅에 제대로 정착조차 하지 못했으니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여기에 결혼 제도라는 인습에 의해 배척당하는 경험까지 했으니 꼬마 시간 아범의 삶은 주드만큼이나 비극이 아닐 수가 없다.

## 2) 꼬마 시간 아범이 삶을 대하는 태도

꼬마 시간 아범은 그 이름과 걸맞게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보통 아이같지 않다. 그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주드보다 더 성숙한 듯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꿈을 먹고 산다고 할 만큼 세상에 궁금한 것이 투성이고 바라는 것 투성이지만, 꼬마 시간 아범은 그러한 이상이 없다. 그는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존재이다. 오히려 그는 이상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현실적이며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주드, 수와 함께 시장에 가 꽃을 보며 아래와 같이 말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그의 면모가 드러난다.

“그러나 제발 저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 꽃이 며칠 사이에 모두 시들어 버릴 거라는 생각을 잊을 수만 있다면, 꽃을 매우 매우 좋아할 수 있을 거예요.”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옮김, 민음사, 1966, 183쪽.)

그에게 꽃은 죽음을 앞둔 생명일 뿐이다. 꼬마 시간 아범은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 또한 평범치 않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세부사항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인 것을 배우는 쪽으로. 즉, 자신에게 인접한 것에서부터 보편적인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꼬마 시간 아범은 인생의 전반적인 원리를 먼저 인식하며 특수 사항에는 관심이 없다. 그의 사고는 마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집과 나무와 들판들을 인간의 서식지 이상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 그의 인생관이 어느정도 납득이 가기도 한다.

### 3) 꼬마 시간 아범의 죽음

앞서 분석한 꼬마 시간 아범의 성격 탓에 그는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된다. 사실 그러한 비극이 순전히 꼬마 시간 아범의 성격 탓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인습의 벽에 부딪히는 경험이라는 큰 동기가 있다. 크라이스트민스터로 돌아온 후, 목을 곳을 구하면서 꼬마 시간 아범은 자신의 어머니 수가 이혼 후 제대로 된 결혼을 거치지 않고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이유로 천대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아마도 이 사건이 그에게는 가장 직접적으로 인습의 벽을 느끼게 된 경험이었을 것이다. 또, 이전부터 꼬마 시간 아범은 사회로부터, 또 스스로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와 주드가 자신 외에 다른 자식을 가졌다는 점도 그가 자신의 존재를 없애려는데에 한 몫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사회의 인습의 영향으로 삶을 포기하게된다.

## 2. 주드

### 1) 주드의 방황

주드는 꿈이 많은 사람이다. 어릴적부터 그는 크라이스트민스터에 가 학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며, 막연하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지만 그의 꿈은 때로는 너무나 막연하기도 했다. 그는 과도하게 이상에 젖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필롯슨을 따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크라이스트민스터로 떠나는가 하면, 찬송가에 감명을 받아 무작정 작곡가를 찾아나서기도 한다. 이런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에 불합리한 사회의 제도, 인습이 더해져 그는 많은 실패를 맛 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몇 십년을 바쳐 기술을 배우고 돈을 모아 크라이스트민스터에 입성하지만, 시골 메리그린의 청년에 불과하는 그에게는 돈이 턱없이 부족했다.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학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답장은 다음과 같았다.

“귀하의 서신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귀하가 자신을 노동자로 기술하는 점으로 판단하건대, 귀하가 사회에서 성공하는 보다 나은 기회는 다른 길을 찾는 방법보다 귀하의 영역에 그대로 남아 현재의 직업에 매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귀하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1』, 정종화 옮김, 민음사, 1966, 209쪽.)

결국 그는 학자가 되는 길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에 굴할 주드가 아니었다. 그는 마음 속 이상이 향하는대로 다시 성직자를 꿈을 품는다. 또, 아라벨라와의 결혼 생활을 실패한 후 그의 진실한 마음에 따라 수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 비록, 주드와 수는 사촌지간이자 같은 폴리 가문으로, 드루셀라 할머니에게서 폴리 가문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지만, 그는 그러한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 이외에도 주드가 메리그린에서 크라이스트민스터로 떠나 다시 크라이스트민스터로 돌아오기까지 그는 많은 방황을 하지만 그는 계속된 좌절과 실패에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선다.

### 2) 주드가 삶을 대하는 태도

주드가 삶을 대하는 태도, 인생관에는 작가 토마스 하디의 열망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토마스 하디와 주드 폴리의 유사성에 있다. 하디는 이 책이 비판하고 있는 모

든 종교 제도, 결혼 제도, 교육 제도 등 사회의 인습들 몸소 겪은 장본인이다. 실제로 하디는 할아버지에서부터 석조 건물을 보수하는 일을 물려받았을 정도로 가문의 사회적 위치가 높지 않았으며, 때문에 교육과 대학에 대한 열망이 컸다. 또, 목사를 꿈꾸다 기성 종교의 사상들에 회의를 느껴 꿈을 포기하기도 했고,<sup>1)</sup> 사촌 트라이피나와 사랑에 빠졌다가 비난을 받은 일도 있었다. 이처럼, 토마스 하디도 주드 못지 않게 많은 좌절을 겪으며 그 과정에서 커진 열망이 주드를 통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드는 사회의 인습에 여러 차례 넘어지기도 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때마다 새로운 목표를 정립한다. 이는 각 부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사실이다. 어릴적 아버지를 여의고 멜스톡에서 메리그린으로, 또 꿈을 이루기 위해 크라이스트민스터로, 그 후에는 세스턴, 올드브리컴 등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이상을 찾아 이동한다. 한편, 세상을 인식하는 면에서는, 꼬마 시간 아범과 반대로 인접한 세부 사항으로부터 원리를 인식하는데, 외부의 주입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깨우쳐나간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 주드는 삶에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의지의 원천이 이상이다. 이것이 토마스 하디가 바랐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 3) 주드의 죽음

주드는 죽음에 문턱에 다다르는 경험을 두 번이나 한 인물이다. 첫 경험은 그가 아라벨라와 파혼을 맞이했을 때이다. 주드는 아라벨라와 갈등을 겪고 드루셀라 할머니에게 찾아가 폴리가문의 비극(아버지가 어머니를 학대한 일, 고모부가 고모를 괴롭힌 일)에 대해서 듣는데, 슬픔에 잠겨 위태로운 얼음위를 걷는 것도 잠시, 오히려 그는 이를 계기로 잊고 있었던 크라이스트민스터라는 꿈을 찾게된다. 그는 슬픔을 잊고 성장하기 위해 한발짝 나아간다.

두 번째 경험은 다시 아라벨라와 재회를 한 이후에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이때 죽음을 맞이하게된다. 그는 많은 도시들을 거쳐, 아라벨라와 수를 거쳐 결국은 다시 그가 그토록 원하던 크라이스트민스터에 아라벨라와 함께 돌아오지만, 그녀의 소홀함에 주드는 입술이 메말라가고, 목이 메말라가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 첫 번째 경험과 달리 그가 진짜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것이 그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러번의 좌절을 헤쳐왔음에도 죽음조차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이 책 『이름없는 주드』가 비극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 3. 주드의 비극성(비교를 통해 정리한)

주드와 꼬마 시간 아범은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닮은점이 많다. 하지만, 때로는 그 거울이 비추지 않을때도 있다. 그들은 이름이 없는 존재이다. 주드는 교육제도, 결혼제도, 종교제도 등에 배척당했고, 꼬마 시간 아범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이름을 잃는다. 특히, 주드는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지우는데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 두 사람 다 개인적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옮김, 민음사, 1966, 199쪽.)

---

1) 조명예, 「토마스 하디의 ‘무명의 주드’에 나타난 비극적 요인」,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3~9쪽.

하지만, 이러한 경험 속에서도 주드는 사회의 인습과 제도에 동화되거나 타협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그가 처음 크라이스트민스터를 가슴에 품었던 희망찬 기억을 잊지 않고 결국 다시 크라이스트민스터에 돌아오며, 수와 자신의 관계로 인한 사람들의 시선에 일자리를 잃게 되자 크라이스트민스터 빵을 만들어 파는 것을 통해 그 열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다음은 주드가 크라이스트민스터에 돌아올 것을 결심하며 남긴 말이다.

“최근 이런저런 일 때문에 크라이스트민스터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수만 괜찮다면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얼굴이 알려졌다고 왜 신경을 써야 하나? ...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창피하게 느낄 것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곧 전처럼 건강해질 것이며 그러면 크라이스트민스터에서 자신의 돌 깎는 가게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옮김, 민음사, 1966, 222쪽.)

주드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서는 이상이 있었다. 이것이 그와 꼬마 시간 아범을 다른 인물로 만들어주었다. 꼬마 시간 아범의 무기력한 태도는 운명적으로 일생을 불행하게 살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당대의 사회 구조와 제도들을 비판하는 한편, 계속되는 비극 속에서 빛나는 주드의 꿈, 이상은 그림에도 그 높은 벽을 넘어보려는 노력들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III 결론

주드는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끝없이 실패를 마주했지만, 결국 그는 첫 혼인을 맺은 아라벨라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드의 일생은 실패로 끝난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드는 비록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운명을 뒤바꾸기 위해 인습에 맞서 싸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특히 자살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꼬마 시간 아범과 대조해보면 더욱 의미있는 일이다. 작가 토마스 하디 역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주드의 실패를 계속해서 그려내지 않았나 싶다. 하디는 주드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비관주의’라는 말 대신 ‘개량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어둡고 슬픈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비극과 슬픔을 넘어 처참하고 암담한 현실이 개량되는 것을 희망하기도 했다.<sup>2)</sup>

주드의 삶에 대한 태도는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큰 교훈을 준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사회가 중요시 하는 가치, 이념을 따라가고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그것이 가시적인 것들이다. 어쩌면 주드와 하디가 살던 그 사회와 큰 차이가 없을 지도 모른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 따라, 성에 대한 관념, 종교에 대한 사상 등도 변화를 겪었지만, 물질적인 부는 당연히 자리잡은 성공의 척도이다. 슬프게도, 한국 청년들의 꿈이 ‘내 집 마련’일만큼 사회는 부를 상징하는 집을 중요시 여기고, 더 높고, 넓은 집에 살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과도한 경쟁에 피로감을 사람들도 많아졌다. 사회의 기술과 문명은 분명 발전했음에도, 주드처럼 사회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꼬마 시간 아범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죽음에 이를때까지 이상을 쫓은 주드의 태도가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주드 개인과 그 사회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이 비극일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주드의 삶은 ‘사회의 인습에 도전하라.’라는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희극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라는 사회의 인습을 쫓는 꿈을 쫓는 삶이 아닌, 꿈에 쫓기는 삶에 불과하다. 다행히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는 주드의 이상을 닮은, 사회의 부조리한 인습과 제도에 맞서 싸우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다. 청년 예술가 지원 단체, 소수자 인권 단체, 환경 보호

2)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옮김, 민음사, 1966, 398쪽.

단체 등 이제는 이름없는 주드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함께 맞서 싸울 줄 이들이 많다. 나 역시 꼬마시간 아범이 아닌, 이름없는 주드도 아닌, 나 자체 000으로 이 사회에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싶다.

## 참고문헌

- 조명예, 「토마스 하디의 ‘무명의 주드’에 나타난 비극적 요인」,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9,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토마스 하디, 『이름없는 주드 2』, 정종화 옮김, 민음사, 1966.
- 이관수, 「‘불운한 주드’에서 발견되는 희극적 효과」, 『문학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인하대학교 대학원.